아침세평

AI 시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명화
교육학박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우리 삶의 일상이 됐다.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부모보다 먼저 AI에게 질문하고, 숙제하다가 막히면 검색 대신 AI를 활용한다. 동화를 읽어 주고, 영어를 가르치며, 그림을 함께 그려 주는 일도 가능해졌다. 기술은 분명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과연 지식을 전달하는 일일까, 아니면 마음을 키우는 일일까.

부모는 아이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친다. 숫자를 세는 법, 글자를 읽는 법, 예절과 생활 습관까지 알려 준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실패를 견디는 법과 같은 정서적 경험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개그우먼 김신영은 어릴 적 할머니와 대화를 개그 소재로 삼고 있다.

학교에서 산수를 빵점을 맞았다. 외할머니는 신영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 "옴마나 우리 똥강아지가 왜 그렬까? 우리 신영이가 똑똑한디 왜 그랄까? 신영아 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둘리 생각하나. 자 들어봐 철수가 빵을 두 개 줬어. 영희가 감자를 하나 줬어. 그러면 몇 개여" 신영이 왈 "두 개" 그때 할머니의 언어에 폭소가 터트려진다. "야 집만 잘 찾아와라." 손녀가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는 인간의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정서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이 정서 조율이 가장 먼저 이뤄지는 공간이다. 아이가 넘어져 울 때 부모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를 안아 주고 눈을 맞추며 울음을 달랜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 따뜻한 체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키워 간다. AI도 아이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건넬 수 있다. 위로의 문장을 만들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거나,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 주지는 못한다. 아이는 정답보다 부모의 눈빛과 표정, 따뜻한 손길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양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보며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일상 속에서 배우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교과서나 AI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교육이다. 인간다움은 설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익혀지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나'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그 출발점이다.

부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이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경험은 건강한 자존감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신뢰는 어떤 인공지능도 대신 만들어 줄 수 없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기술이 지식을 대신 전달할수록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읽고, 실패를 함께 견디며,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알려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정답을 알려 주는 부모가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 주는 부모이며, 성공만을 칭찬하는 부모가 아니라 노력과 용기를 함께 인정해 주는 부모이다. 결국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은 가장 똑똑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관계이다.

AI 시대일수록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 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지식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힘, 그리고 사랑받았다는 기억이다. 기술은 양육을 도울 수 있지만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다움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길러진 공감 능력으로 완성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국 정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고

맹자 '천시·지리·인화'에 담긴 교통안전 원칙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올해 전남의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통계가 있다. 교통사망사고가 오히려 5% 증가했고, 특히 고령자 교통사망사고는 17%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다.

사고는 줄었는데 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늘었을까. 그 이유를 고민하던 중 문득 2000여년 전 맹자의 말이 떠올랐다. 맹자(孟子)는 저서 '공손추(公孫丑) 하(下) 편'을 통해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고 말했다. 좋은 때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오래된 가르침은 오늘날 교통안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천시(天時)다. 하늘의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있다. 폭우와 안개, 폭염, 결빙은 모두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기상정보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결합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전남경찰 역시 재난으로 인한 도로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와 실시간 공유하며 운전자들이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음은 지리(地利)다. 안전한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고가 반복되는 교차로와 급커브 구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도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과 도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보완할 때 비로소 도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화(人和)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도로환경이 갖춰져도 사람의 실천이 없다면 안전은 완성될 수 없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일,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일, 안전띠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일, 어르신이 길을 건널 때 조금 더 기다려 드리는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습관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위한 일이자,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남경찰은 올해 남은 기간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 이장을 교통안전반장으로 위촉해 생활 속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방송을 통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경고등과 스마트 경광등을 보급하고,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더 속도를 줄이고, 어르신이 길을 건널 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농기계나 전동의자차를 만났을 때도 서두르기보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 어르신들께서도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야간 외출 시 밝은색 옷이나 야광 안전용품을 착용하는 작은 실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된다.

천시를 읽고, 지리를 살피며, 인화를 이루는 일. 맹자가 전한 이 고전의 지혜는 오늘날 교통안전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교통사고는 결코 운이 좋아야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측하고 대비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쌓일 때 사고는 줄고 생명은 지켜진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더 안전한 전남을 만들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취재수첩

사라진 '필름앤비디오·시네마펀드'의 빈자리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레드카펫을 밟으며 어둑한 전시장에 들어서면 강렬한 흑백의 무빙 이미지와 날카롭게 번지는 사운드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실험영화 작가이자 한국 최초 여성 실험영화 집단 카이두 클럽의 리더인 한옥희 감독의 필름, 5·18민주화운동 40주기 기념작 '둥글고 둥글게' 등 다채로운 실험영화를 만날 수 있는 ACC 필름앤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전(~9.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그동안 ACC가 연구하고 수집해온 아시아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 일부를 한 공간에 다시 호출했다.

전시가 인상적인 이유는 작품 자체의 힘만이 아니다. ACC가 한때 아시아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를 수집하고 연구해왔던 흐름이 전시장 곳곳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사업은 상업적 유통망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아시아 각국의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 작품을 모으고, ACC 시네마테크로 확장하며 연구와 상영, 전시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아시아 영상예술 창작을 지원한 시네마 펀드는 그중에서도 창작을 직접 발생시키는 핵심 축이었다. 2018년 첫 공모 당시 아시아 17개 지역에서 118편의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사전제작과 후반제작 지원을 통해 총 10편이 선정됐다. 실험영화와 다큐멘터리,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등 비상업 영상예술의 가능성을 공공기관이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시 선정 작가들의 면면도 주목할 만했다. 한국의 변재규를 비롯해 스리랑카의 비묵티 자야순다라, 필리핀의 존 토레스, 태국의 타이기 삭피싯 등 아시아 실험영화와 독립영화의 주요 창작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 작가들은 ACC의 필름제작 워크숍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완성작은 ACC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는 구조였다. 제작 지원과 연구, 상영, 국제 교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던 셈이다.

이같은 점에서 '아시아의 장치들'은 과거 아카이브의 성과를 품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을 확장하던 사업들은 현재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아시아의 실험적 영상예술을 수집하고, 새로운 작품의 제작을 지원하며, 이를 다시 관객에게 공개하던 순환 구조가 약해진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시장 논리 안에서 쉽게 설 자리를 얻기 어려운 비상업 영상예술을 들여다 보고, 그것이 다음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은 ACC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전시는 ACC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아시아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험적 영상예술이 다시 ACC 안에서 수집되고, 제작되며, 상영될 수 있도록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와 시네마 펀드가 지녔던 가치를 다시 들여다볼 때다.

사설

광주구치소 신축, 이젠 해법 찾아야 한다

호남권 유일의 교정시설인 광주교도소의 수용정원 과밀상태가 심각하다. 수용률이 수용정원의 1.5배 가까이 된다. 즉, 10명이 수용될 공간에 15명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은 2259명으로 수용정원(1560명)을 699명이나 초과했다. 수용률 145%로 전국 평균(127%)을 크게 웃돌고 있다. 수용률이 전국 교도소 중 세 번째로 높다.

여기에는 호남권에 미결수용자 전담 구치소가 없는 게 가장 크다.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 곳에는 이날 현재 형이 확정된 기결수 1285명과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974명이 수용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원 5명 규모의 수용거주공간에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교육·교화와 직업훈련, 의료·심리치료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교정공무원들의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전담시설인 이 곳이 최근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까지 되면서 전문 처우 공간 확보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북구 일곡동 국유지에 1405억원을 투입, 수용정원 900명 규모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10여년째 '올스톱'됐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10년 신축계획 수립, 2021년 광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거쳤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동안 현 교도소부지 내 증축이나 인접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시)도 지난 4월 예정부지에 대규모 주거지역·학교 밀집, 주민반발등을 이유로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를 법부부에 공식요청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부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해 당사지인 북구와 주민들의 불참의사로 이마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광주구치소 신축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와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교정당국과 이해 당사자인 전남광주, 북구, 주민들의 소통과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함평 자동차극장 휴관…작은 영화관도 위험

'함평 자동차극장'이 문을 닫는다. 지역 유일한 영화관람공간인 이곳이 극심한 운영난에 다음달 1일부터 휴관키로 한 것이다.

차량 180대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이곳은 지난 2021년 1월 개관한 이래 지속적인 운영난을 겪으면서 적자가 누적돼 왔다.

지난 7월까지 5년 6개월간 누적 관람 수입이 6억4544만원이지만 지출액은 14억3866만원으로 7억9322만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관람객 감소세도 뚜렷해 2021년 1만4138대였던 관람 차량이 2022년 7562대, 2023년 3763대, 2024년 4191대, 2025년 2393대로 줄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227대에 그쳤다. 이에 관람 수입도 2021년 2억8002만원에서 2023년 7089만원, 2025년 4536만2000원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영악화가 전남광주 군단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문화사랑방 '작은영화관'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2015년 장흥에 1호점이 들어선 이래 강진·무안·담양 등 13개 군에서 운영중인 작은 영화관은 대도시 영화관의 절반수준(7000원)의 저렴한 관람료와 접근성에 한동안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흥행작에 의존하는 영화관 특성상 관객이 '들쑥날쑥'하고 저렴한 관람료 수익의 절반을 배급사와 나눠 가져야 돼 사실상 운영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2019년 48만2068명으로 정점을 찍은 관객 수는 코로나19때인 2020년과 2021년 10만명대로 추락했다. 2022년 35만4037명, 2023년 40만8523명, 2024년 42만5997명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4' 등과 같은 흥행작이 없는 지난해에는 39만912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3곳중 8곳이 적자를 봤다.

여기에 이를 보전해줬던 정부 지원도 점점 줄면서 이들 영화관은 자치단체의 운영비 도움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작은 영화관은 단순 영화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 예술 향유에서 소외된 지역의 문화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다. 정부와 지자체는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사회부	370-703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